

# 북한개발소식

2025 JUN

06

통권 236호

이달의 주제

러우 전쟁 종식과 북한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9)

북한뉴스

북한 파병 공식 인정...러, 북러 우호관계 선전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러우 전쟁 종식과 북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5 JUN

이달의 주제 :

### 러우 전쟁 종식과 북한

- 권두칼럼 **01** 러우 전쟁 종식과 북한
- 칼럼\_1 **08** 남성욱\_ 러우전쟁 종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칼럼\_2 **13** 문성묵\_ 러우전쟁 종전이 북한과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
- 칼럼\_3 **19** 오일환\_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 탈북민 수기 **27**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9)
- 서평 **32**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북한뉴스 **34** 북한 파병 공식 인정...러, 북러 우호관계 선전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외



최근 북한이 그간 쉬쉬해왔던 러우 전쟁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군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협력을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 공식화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러우 전쟁의 ‘공동 교전국’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본격화될 러우 전쟁 종전협상에서 공동 교전국으로서의 상당한 지분과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푸틴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러우 밀착 관계도 앞으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sup>1</sup>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러우 전쟁 종식 또는 휴전이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러우 전쟁 종식에 따른 북핵 문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와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도제목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미국의 북핵 접근법의 변화와 기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sup>1</sup> 변상정, 「러시아·북한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 배경 및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684호 (2025.04.30.), 3-4.



〈2018년 6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대화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1기 당시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핵 개발을 지연시켰다고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였

다.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에 임명된 알렉스 윈은 1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대북업무를 포함하는 특별 임무 담당 특사로 임명된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에 관여해야 하고 김정은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sup>2</sup>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북한과의 대화 의지 표출에는 지난 1기 당시 최초의 북미간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있겠지만, 북핵 문제의 완화 또는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관여적인 접근법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4년 9월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후 국제적 관여가 없었고 핵 프로그램 또한 상당히 확대”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sup>3</sup>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프랭크 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은 올 5월 6일 카네기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안정적인 공존을 우선하는 기조로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sup>4</sup>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일치된 견해이며,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

라 오히려 부추긴다는 사실이 명확하지만, 미국의 대북 외교 접촉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감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 때문인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직전 대통령 선거인 2020년 당시에 양당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가 제시된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시도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계하여 바라보는 분석도 있다. 미 의회 산하 미중위원회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역사적으로 오랜 불신과 균열이 있으며, 이는 미국에게 외교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sup>5</sup>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sup>6</sup> 과거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대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더 이상 이러한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상당한 갈등과 거리감이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북중 간의 관계 균열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선우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간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직접 북미 대화에 나섬으로써 '북중 관계의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7</sup> 북한의 종립화 내지는 친미 국가화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한 후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이를 고리로 북미

2 “트럼프 특사에 그리넬, 북·미 대화 주목”, 중앙일보(2024.12.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164>>

3 IAEA 총장 “北 핵보유 인정해야” 트럼프 측근 “北 핵능력 美 앞서”, 동아일보 (2024.09.28.),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928/130120598/2>>

4 美전문가 “트럼프, 비핵화 압박 대신 北과 안정적 공존우선해야”, 연합뉴스 (2025.05.08.),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00200071>>

5 Een Frohman, Emma Rafaelof, and Alexis Dale-Huang, “The China-North Korea Strategic Rift: Background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Report (Jan 24, 2022)

6 폼페이오 “김정은, 주한미군 필요하다 해...中위협서 보호 원했다”, 중앙일보 (2023. 01. 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599>>

7 “트럼프, 中 견제 일환으로 북한 활용할 듯...북중 균열 유도”, 뉴스1 (2024.11.26.),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611964>>

데탕트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겨 마치 베트남처럼 일정 정도 중립화할 수 있다면, 신냉전 지정학 경쟁에서는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sup>8</sup>

## 북미협상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상에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제재를 상당 부분 우회 또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핵 전력을 일정 수준 유지한 가운데 전술/전략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호령(2025)<sup>9</sup>은 “북한의 전략적 상황 및 핵방패론과 러북 양자관계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협력이 진행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을 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은 미북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 협상을 하기 보다는 북한 핵을 용인하며 대북제재를 우회해 주는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도 올 4월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프랑스 외교부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러 관계 밀착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유인이 떨어졌으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매력적인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러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압력을 통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되돌리려는 모든 전략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응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sup>10</sup>

박형중(2025)<sup>11</sup>은 북한이 더 큰 한반도 위기상황 조성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이를 통해 비핵화가 아닌 자신의 전술적 이익을 얻어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북한은 자신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틀에서 실효적 협상을 개시하려면, 대미 추가적 ‘압도적 힘의 과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또다른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협약이 아닌 “트럼프 임기 동안 일회성 전술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러 밀착이 미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고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와는 반대로 북러 밀착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추재우 교수는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중-북-러 삼각 관계의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sup>12</sup> 그는 중국, 북한, 러시아 3자 관계가 북한과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정책도 사전에 양국간의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러 관계 강화가 북-중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제로섬 오류이며, 북-중-러 3자 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과 중-러 간 사전 정책 조율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올 5월 8일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으로 방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한반도 문제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돼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박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하고, 동북아 지역 교통, 에너지, 무역, 투자,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등 분야에 관한 두만강 이니셔티브 참여국 간 협력 발전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sup>13</sup> 중러간에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월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8 “트럼프, 중국 견제위해 북미 데탕트 추진 가능성”, 연합뉴스 (2025.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0114400504>>

9 이호령,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연구원 EAI Global NK 논평 (2025.04.18.).

10 “美, 北에 매력적 상대 아냐…북러밀착으로 대화 더 어려워져”, 연합뉴스 (2025.04.29.),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9007900072>>

11 박형중,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동아시아연구원 EAI Global NK 논평 (2025.04.21.).

12 Jaewoo Choo, “Pyongyang-Moscow Ties Are a Force Multiplier to Pyongyang-Beijing Relations”, 38North (2025.05.15.), <<https://www.38north.org/2025/05/pyongyang-moscow-ties-are-a-force-multiplier-to-pyongyang-beijing-relations/>>

13 푸틴·시진핑, “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촉구, 연합뉴스 (2025.05.08.),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189252080>>

## 러우전쟁 종식에 따른 시간표

앞서 우리는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북한의 입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향후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진영으로 넘어오거나 중립적 국가가 되는, 그래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림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비해 북미 협상이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나 군축 등 다른 모양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인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 비핵화 대신 북미 관계 개선과 핵 군축을 통해 미국과 북한 모두 일정 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성(2025)<sup>14</sup>은 미국과 북한이 현재로서는 외견상 ‘엇박자’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최대치(북한의 친미국가화)와 최소치(북한의 미국 및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최대치(한반도의 공산화를 미국이 방해하지 않는 것)와 최소치(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체제 존속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교집합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브로맨스’를 재현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비핵화 절차의 선후가 뒤바뀌는, 소위 ‘나쁜 거래(bad deal)’가 일어나거나 한국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등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본토 위협 요소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무력화와 같은 부분적 합의를 위해 대북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sup>15</sup>

향후 있을 북미 대화에서 우려되는 바와 같이 애매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대북 억지력만 약화된 채 여전히 북한의 핵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북핵 문제가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향후 있을 북핵 협상에 참여할 각국

의 의사결정자들과 회담 실무자들이 바른 결정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각종 위협과 도발을, 내부적으로는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특별히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위협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울 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HEU를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들이 들어 있다. HEU는 핵탄두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조선중앙통신)〉

그동안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간 북미 협상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러우 전쟁을 비롯한 시급한 외교적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외교적 이슈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팔 분쟁 종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핵 협상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러우 전쟁 종식도 점차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도 공동 교전국 지위 등으로 해당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 이제 북한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다음 스텝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대비하여 내부 회의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들려온다.<sup>16</sup> 여러 전망들과 예측들은 앞으로의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한반도 가운데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

14 김동성 (2025), 앞의 책, pp. 7-10.

15 “빅터 차 ‘트럼프, 北 CVID 표방하나 對美위협 제거에 집중할수도’”, 연합뉴스 (2025.2.19.),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005000071>>

16 “트럼프 美정부, 北과 대화재개 대비해 내부 논의·전문가 협의”, 연합뉴스 (2025.04.28.),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8011500071>>

# 러우전쟁 종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걸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교향 장례식장 옆 건물에서 언론용 보여주기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이 요청한 광물협정 체결에 전격 합의했다. 전제 조건은 트럼프의 대 푸틴 압박 강화다. 대선 공약인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와 전쟁 지속에 여력이 없는 젤렌스키 간 그럴듯한 절충안이다.

반면 푸틴은 ‘침대 축구’ 전술로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를 역이용하여 명분과 실리를 챙기고 있다. 다만 전쟁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교착상태에 처해 있고 양측 전력의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전황을 흔들 막판 대공세는 쉽지 않다. 종전이 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날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푸틴은 자신이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4월 하순 “러시아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이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며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장문을 인용하여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다는 점을 통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에서 파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역이 원래 러시아 영토로서 회복 작전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침략이 아니라 수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상대국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김정은이 파병 북한군들을 “조국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한편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으로 인해 적잖은 북한군 희생자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유포된 파병과 피해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 북한 파병 사실 전격 공개 이유

북한이 파병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우선 전황이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 가능성이 사라졌다. 북한 내부에서 파병 사실을 계속 숨기기는 어렵고 공식화하는 것이 흥흥한 민심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4월 28일 러시아 국방부가 쿠르스크주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러시아 국방부 영상 캡처)〉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했으나, 북한은 좀처럼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2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1~2월 사이 3천여명을 추가 파병했다. 실전에 투입된 초반에는 드론 등 첨단 무기에 꼼짝없이 대규모 희생자를 냈지만, 이후로는 빠르게 전장에 적응하며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적잖이 기여했다고 한다.

다음은 파병에 대한 피의 대가를 러시아로부터 확실하게 받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북한은 입장에서 이번 파병이 “북러 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 우주항공 기술과 최근 김정은이 서두르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이 외에도 양측의 경제협력도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은 5월 1일 북러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북러가 지난해 6월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따라 “쌍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적극 취해



〈2021년 당시 주북 러시아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이 '철길 수레'를 이용해 귀국하는 모습. (러시아외무부 페이스북)〉

지고 있는 속에 조로(북러) 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이 착공되었다"고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축하 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조로(북한·러시아) 평양 수뇌 상봉 이후 쌍무적 교류와 협조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활력있게 확대 발전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동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자동차다리 건설이 "새로운 전면적 발전 궤도 위에 올라선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만년기들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를 축성 보강하고 인원 내왕과 관광, 상품유통을 비롯한 쌍무협력을 다각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러 간 나진-하산을 통과하는 화물 열차 운행용 철교(우정의 다리)는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교량은 없었다.

과거 코로나 시절 주북 러시아 대사가 철도를 통해 겨우 북한을 탈출하는 페이스북 사진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2021년 2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8명의 직원과 가족들의 귀국길 사진을 공개

했었다. 사진을 보면 이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발로 페달을 돌려 운행하는 '레일 바이크' 식의 수레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다리가 운영을 시작하면 물자 이송과 인적 이동 등 북러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자동차다리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량 길이는 진입로 등을 포함하면 최장 1km가 될 예정이다.

## 푸틴의 북한군 파병 사실 인정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러시아가 앞서 북한군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했다고 주장한 이후, 푸틴 대통령까지 김 위원장에게 공식적인 감사를 표했다. 러시아는 필요한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가를 시인하지 않다가 지난 4월 26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을 언급하면서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푸틴은 이날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 파병군에 대해선 "우리 북한 친구들은 연대감과 정의감, 진정한 동지애로 움직였다. 그들은 명예와 용기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칭송했다. 이어 "러시아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조국을 자신의 것처럼 수호한 북한 병사들이 전투 중 보인 영웅적 행위와 탁월한 훈련과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의 영웅적 행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를 위해, 우리 공동의 자유를 위해 러시아 전우와 나란히 싸우고 목숨을 버린 영웅들을 언제까지나 기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장에서 단련된 양국 간 우정과 선린관계, 협력의 강고한 유대가 계속 성장하고 전반에 걸쳐 확대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발표와 같이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전투에 북한군이 가담한 건 국제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병은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조약의 4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의 파병이 불법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규정 위반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사전에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 러우 전쟁 종료와 한반도 안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인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들은 '전쟁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

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참전을 공식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고, (생포 병사들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신청 후 한국행 의지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1명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수용소에서 조사받으며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이들 북한 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병사는 전쟁 포로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 하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소통해왔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곳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 한반도 안보의 후폭풍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특별군사작전의 경험은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며 북한의 파병이 조약에 따라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 러우전쟁 종전이 북한과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하면서 개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다. 당초 1개월 이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푸틴이 지배하는 위성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계산은 빗나갔고 오히려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푸틴은 김정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푸틴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 받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일부 영토 탈환과정에서 파병 북한군의 도움을 입었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세기의 조폭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불법행위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은 동병상련 상태였고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푸틴과 김정은은 2023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보란 듯이 북한의 위성개발을 적극 도울



〈2023년 북러 정상회담으로 방러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함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북한은 두 차례나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그 뒤에 러시아가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2024년 6월 푸틴은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거기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동맹조약이며 1960년대 조소동맹의 복원이다. 이 조약에 의거하여 김정은은 그해 10월 특수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군 1만 2천여 명을 파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현대전을 체험했다. 북한군의 21세기 첨단 전쟁 경험은 북한군의 전투력 증강으로 이어져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항공 및 신형 미사일 기술의 이전과 핵 잠수함 등 관련 첨단 전력이 빠르게 이전될 경우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단기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북한의 대담한 제재 위반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은 가속화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 폭풍과 방위비 압박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북러의 군사결탁과 전면적인 협력은 우리에게 전례없는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북러의 군사동맹이 최고조에 달함으로써 우리 안보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있다. 1950년 5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최종허가를 득한 김일성은 중국의 모택동을 만나 침공 일자와 구체적인 전략을 확약 받았다. 한반도의 침략은 항상 남측의 바다와 북측 시베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시베리아 발 전쟁의 서늘한 냉기가 내려오고 있다. 풍전등화의 운명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작금의 사태를 국난(國難) 수준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야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하는 길 이외에는 별 뽀쪽한 수가 없다. 혈맹도 동맹도 없는 정글의 국제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위기를 느껴야 할 시기다. ☹️

했고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후 3천여 명을 추가 파병했고 이중 5천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파병 직후부터 러시아와 북한 공히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파병 북한군은 러시아군 신분증을 받았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았다. 하지만 쿠르스크 전선이 회복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2025년 4월 하순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푸틴은 북한군의 용맹함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면서 영원히 이를 기릴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도 러북 동맹조약에 의거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해방전쟁에 명예로운 파병임을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도 유사시 북한에 군사적인 파병이 가능함을 밝혔다.

4년을 넘어서 러우 전쟁은 수많은 피해를 발생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공언해 왔고, 취임 직후에는 일방적으로 푸틴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러시아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활용하려는 계산이었던 것 같다. 올해 2월 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전쟁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체결을 주도했고,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났지만 이상한 모양새로 불발된 바 있다. 30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푸틴은 이를 거절했다. 휴전 자체도 어려운데 과연 종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러우전쟁 종전 가능성, 러우전쟁이 북한 정권과 미북 핵 협상, 그리고 우리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러우 전쟁 종전일까? 휴전일까? 가능성 진단과 전망

2025년 5월 현재, 전선은 전반적으로 교착상태에 있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지역(헤르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을 점령한 상태에서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을 탈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쟁을 종결시켜보려 하지만,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중재로 5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고위급협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포로 교환과 관련된 사항만 일부 합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회담이 종료되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푸틴과 젤렌스키, 그리고 나토의 주요 정상들과 전화를 걸어 중재에 나섰다. 그리고 5월 19일 푸틴과 전화 회담을 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3번째이다. 기대를 모았던 전화 정상회담에서는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합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 등 구체적인 진전이나 돌파구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는 “통화가 매우 잘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SNS에 밝혔다. 푸틴 또한 “이날 회담은 매우 유익하고 솔직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면 휴전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입장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

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휴전도 어려운데 종전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전관련 주요 당사국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각국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식 정의로운 평화의 추구이다.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및 적대행위 중단, 1991년 이전으로 영토 회복, 영토 훼손 등 전쟁회복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러시아는 현 점령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구 지배권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선포 및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크림 돈바스 등 점령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권 인정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허, 유엔/나토/유럽안보협력기구/유럽연합/러시아/우크라이나 등 국제기구 및 서방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및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요구한다. 유럽 및 나토의 경우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후 복구 및 회복비용 지불 제도화, 우크라이나 및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핵 위협 근원적 차단,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중립지대 선포, 다국적 정전감시위원회에 의한 중립지대 감시·감독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우 전쟁 종전 관련 각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내 입장 조율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종전을 주도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전보다는 제한된 휴전 또는 정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욱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전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러우 전쟁도 그럴 가능성이 우려된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우 전쟁 항배에 따른 북한 정권의 이해 득실

러우 전쟁이 조기에 종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휴전에 돌입하여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런 현실이 북한 정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해득실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선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되는 점은, 첫째, 김정은이 원하는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고도화하려고 하지만 경제적 기술적 제한사항에 직면해있다. 그 돌파구로 러북 동맹을 선택했다. 단거리 미사일부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한 북한이지만 마지막 관문은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두 유도기술,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등은 김정은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이에 김정은은 수많은 젊은이를 러시아에 보내 피를 흘리게 했다. 푸틴에게 빛을 지도록 만든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이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정제



〈북한이 지난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찾아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시찰했다며 공개한 현장 사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은 건조 중인 잠수함 옆을 걸으며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

유 도입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 필요한 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러시아에 제공된 무기와 병력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이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지난 4월 7일 ”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우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 7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인적지원으로 약 4천억 원, 탄약공급 및 물자지원으로 약 27조 4천억 원, 기술지원으로 약 9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북한에 미칠 손해를 보면, 첫째, 김정은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가 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공공 숨겨왔던 점만 보더라도 이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와서 파병의 정당성, 파병군인의 영웅화 운운하지만, 과연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다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러우 전쟁이 휴전 모드에 들어가고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러북 동맹과 밀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전쟁 이후 경제회복이 절실한 러

시아 입장에서 북한과의 동맹 유지도 필요하지만, 미국, 한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김정은 정권의 입지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셋째, 러북 밀착은 중북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 러북 동맹 출범이후 중북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러우 전쟁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

러북 군사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다. 최근 김정은은 러시아의 조기경보 통제기와 유사한 기종을 선보였다. 신형 5천 톤급 구축함을 과시하고, 공대공미사일의 사격장면도 노출시켰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핵미사일 역량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지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러시아의 위성항법 시스템 글로나스와 연동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정찰역량을 구비하게 된다. 더욱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파병과정에서 무인기 전술 등 실전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위협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경우 러북 동맹조약에 의거하여 러시아가 즉각 군사 개입을 하고 덩달아 중국도 동참한다면 제2의 6.25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러우 전쟁이 주는 기회의 측면도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K-방산과 손잡고 있

다. 나토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러북 밀착과 동맹의 강화는 결국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북핵 관련 미북 협상과 대북제재에 미칠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집권시 이루지 못한 북핵 협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가 하면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한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는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부르면서 마치 북한 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환상“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 재개시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을 비롯해 여러 계기 때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임을 강조함으로써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관세전쟁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일단 북한과의 협상은 후 순위로 밀린 상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입장이 2018년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이 한층 고도화된 것은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러시아 전승절 계기 열린 중러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을 향한 제재를 풀라고 요

구하기도 했다. 거기에다 실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재개된다 해도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고 제재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김정은도 모르는 바 아니다. 따라서 미북 핵 협상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재개될지, 재개된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엔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요원해 보인다.

## 대한민국 안보 및 자유 통일 성취의 계기로 만들어야

러우 전쟁 종전 및 휴전을 위한 협상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1951년부터 2년여 동안 진행된 6.25 전쟁 정전 협상이 장면이 떠오른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 이후 안전보장을 위해 초강대국 미국과 끈질긴 협상을 전개했고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국과 동맹조약을 이끌어 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안전보장이 어디 있을까? 이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북한의 재침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러우 전쟁은 불법적인 러북 침략동맹을 낳았다. 이는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 종전은 커녕 휴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쟁의 상황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우리로서는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면서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러북 침략동맹으로 러시아의 대북군사지원이 지속된다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로 러시아 측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오 일 환 (국민대 글로벌 평화·통일 대학원 겸임교수)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며 국제질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국민적 불만과 민주화 요구가 비등하자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장기집권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만 3년이 지나도록 공방전만 거듭해 오다 최근 들어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종전을 종용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 지루한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많은 군인의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도 팽배해지자 종전을 내심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9일 트럼프-푸틴의 2시간에 걸친 통화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각적인 휴전 및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무조건적인 휴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을 제안하

는 한편 미국이 협상에서 거리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종전 협상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즉,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 군사력 축소,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 영토 인정 등을 요구하며 모든 조건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먼저 휴전을 체결한 후 장기적인 평화 협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양국의 입장 차가 크다. 결국, 협상 타결은 이 입장 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중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요청과 전략적 판단<sup>1</sup>에 따라 무기와 탄약, 그리고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심지어

1 북한이 무기와 탄약,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군대를 파병한 것은金正은의 통치자금 확보,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확보를 통한 군사 역량 강화,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의 탈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어 가자!!

## 우리의 기도제목

첫째, 러우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둘째,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침략국이 승전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도록

셋째, 러북 간 불법 밀착과 동맹이 더 발전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북한에 침략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나 기술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넷째,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러북 동맹으로 인한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국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도록

다섯째,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의 꿈을 갖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여 광복 100주년에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

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음을 강력 경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자위력은 물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전쟁에 내몰려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침략자가 승리하는 결과는 결코 얻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을 강요해야 한다.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복의 빛은 휴전선 이남에만 비치고 있다. 이제는 이 빛이 이북에도 비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이다. 자유 통일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안보임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최고의 인권이다. 이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안보 현실을 자유 통일의 계기로 만들

2024년 말에는 군 병력까지 파병<sup>2</sup>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전쟁의 종전과 함께 북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또다시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러·우 전쟁 종전이 북한에 미칠 외교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외교적 측면

북한은 무기 및 탄약의 공급과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이러한 군사적 파트너십의 강화는 북한으로서는 외교 협상에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지렛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북·러 관계와 관련하여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를 ‘동맹 관계’, ‘형제 관계’로 표현한 것은 러·우 전쟁 이후 그만큼 양국이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러·우 전쟁 종전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은 종전 이후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은 뒤로 한 채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거나 더 강



〈2024년 6월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화하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쪽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러·우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 전쟁의 종전으로 러시아가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대 서방관계를 개선하게 될 것인가, 현 상태로 고착될 것인가에 따라 러·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비서방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 가운데 북한과는 군사 협력을 통해 ‘혈맹 관계’를 맺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푸틴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최신 군사 기술을 얻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를 도와 군대까지 파병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으로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찰 위성,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 SA-22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sup>.

한편, 지난 4월 28일 자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와 전체 지도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는 푸틴의 성명 전문을 실었는데, 푸틴은 “전쟁에서 공고화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의 관계가 앞으로도 모든 방면에서 성과적으로 박력 있게 발전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북·러 관계가 전쟁 기간에 공고화된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만약 러시아가 대 서방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 한다면 북한과의 밀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지금의 북·러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최신 군사 기술의 대북 지원에 제동을 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동안 북한을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삼을 것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살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적 고립의 완화를 모색하는 동

3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 『조선일보』(인터넷 기사), 2025.04.30.

시에, 신 군사 기술의 도입으로 최대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 또는 강화하려 할 것이다. 종전 후에도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동북아 쪽으로 관심을 돌려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한·미·일 남방 삼각 협력체제에 맞서 보다 강화된 북·중·러 북방 삼각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중국 역시 지정학적으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에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급진전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 왔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 관세 압박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 협력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중·러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종전 이후에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으로 고도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할 것이 뻔하다. 이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에 더 기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군사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착될 경우, 북·러 관계는 종속적 형태의 동맹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우 전쟁 종전과 함께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외교정책에 있어서 러·우 전쟁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로

2 2025년 4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경내에서 진행된 북의 군사 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북·러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그것이 발효된 2022년 12월 4일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감지된 것은 동년 10월경이었다. 미국과 NATO는 2024년 10월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입장이고 북한으로서는 유엔 제재로부터 벗어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후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전망과 관련하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은 자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해서 북미 간 회동은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up>4</sup> 이는 러-우 종전과 함께 미·북 간 트럼프-김정은 간의 전격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또는 핵 동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 제재의 완화 없이는 인도적 지원의 반입은 물론 경제난 해소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려 하고, 미국은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경우, 미·북 간의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방 삼각관계의 외교 축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노선을 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때 북미 관계의 냉각은 강 건너 불 보기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긴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미·북 관계가 파탄이 날 경우, 북한은 핵

실험이나 러시아의 신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고도화 시험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러시아는 북·러 군사 협력을 근거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정당화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의제로 다룰 때 상임이사국 5개국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경우, 미·북, 미·러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과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 종전 후에 북·러, 북·중 협력이 강화되어 북방 삼각관계가 강화되면,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압박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가 전략적 대결의 전선이 되어 동북아 질서는 한·미·일 삼각관계와 북·중·러 삼각관계 간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신(新)냉전체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 정치사회적 측면

러시아에 북한군 사상자에 관한 소식이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동요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10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주민에게 알려져 확산되는 것을 의식한 북한 당국이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파병군인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입단속을 하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시켜 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sup>5</sup>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 단속 움직임은 파병 사실조차도 공식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사상자 소식이 알려질 경우, 북한 체제에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26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칭찬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첫 공개발표였다. 이틀 후인 4월 28일 자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를 통해 전달 27일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입장문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러-우 전쟁 참전이 국가수반인 김정은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파병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러-우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에 따라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점령해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형제적 나라 러시아”와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로 공동의 위업 수행”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쿠르스크 해방작전’을 부각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른 파병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고, ‘러시아 영토의 해방에 중대한 공헌’을 강조한 것은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조장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하루 전날인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축하연설을 한 연설 전문을 자리에서 한 연설 전문을 보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나는 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결심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동지와 신속히 공유했고, 우크라이나 신나치 강점자들을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하며, “우리 무력의 참전과 관련해 헐뜯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그들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공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행하지만 없었다면 우리의 검과 창에 무주고혼의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 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없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 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sup>6</sup> 연설은 러-우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우크라이나가 핵 대국인 러시아를 침공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한국군도 이를 본받아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 마땅히 해

4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 명 사상", 『뉴데일리』, 2025.04.30.

5 “러 파병에 北주민들 동요 "일부 부모 무작정 부대 찾아가", 『조선일보』(인터넷 기사), 2024.10.31.

6 “김정은 "우크라이나괴뢰 방치하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함 따라해", 『연합뉴스』, 2025.05.10.

야 할 의무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러-우 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일련의 행태는 파병군인들의 많은 인명 피해에 따른 정치사회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 파병 사실과 전사상자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함구령을 내리고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새어 나가는 정보는 차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혜산시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하는 주민들을 통해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소식들이 국경 지역의 상인들과 왕래가 잦은 내륙지역 상인들을 매개로 내륙의 주민들에게도 급속도로 전해진다고 한다.<sup>7</sup> 현재까지 사상자가 4700여명(이 중 600여 명은 전사)에 이르고 앞으로 더 많은 인명의 피해가 따를 때, 장차 전사자나 상이병 가족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증폭하게 되고,<sup>8</sup> 나아가 명분 없는 파병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확대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며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지난 4월 27일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파병의 인정과 함께 전투 위헌비 설립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김정은은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헌비가 건립될 것”이고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며, “그들의 넋을 길

이 전해가야 하며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sup>9</sup> 이처럼 평양에 위헌비 건립과 참전용사 가족 특별우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장차 닥칠지도 모를 사회적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려는 의도적인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여파가 북한의 정치사회 영역에서 중국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류 문화의 영향, 장마당 세대의 반응 등 여러 변인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변혁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러-우 전쟁 종전 후에는 김정은 정권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체제 결속을 위해 파병 사실을 정당화하는 방송과 당 조직, 사회단체,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 전쟁과 파병의 ‘정당성’과 관련한 선전·교육을 크게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이 전쟁이 ‘미제의 조종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침략전쟁’이었다고 호도하면서 러시아를 도와 북한군을 파병한 것은 ‘제국주의에 맞선 정당한 참전’이었다고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이 미국의 조종을 받아 북침할 수도 있다는 식의 ‘미국의 군사적 위협’의 위기의식과 반미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러-우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로 파병 사실을 합리화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대가로 얻은 최신 군사 기술 확보를 통해 핵 무력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대미 억지력 확보에 큰 진전이 있게 되었다는 자긍심 고취 선전·교육에 몰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어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을 확보하게



〈25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군이 SNS를 통해 공개한 생포된 북한군의 모습〉

되어 장차 인민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선전·교육에 힘쓸 것이다.

## 경제적 측면

러-우 전쟁 종전 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러 국제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유엔 제재망을 회피하며 대북 교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트럼프의 강화된 대중 경제 압박에 보란 듯이 대북 교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의 대북 경제 교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제재 위반이 급증했다. 북한이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면서 국제 제재를 회피하며 북·러 간 교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sup>10</sup>

러-우 전쟁 종전 후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의 국제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며 북·러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필수

물자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려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러시아 관계에 대해 “북한은 대러 파병, 무기 수출 대가로 경제·군사적 이익을 일부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 5000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sup>11</sup>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러-우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부족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는 대신, 북한의 14개 부문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지역 전후 복구에 북한 노동자를 대거 투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종전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가 완화되면 러시아의 대북 교역이 축소될 것이지만, 서방의 대러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는 양국 간에 유엔 제재를 회피하며 교역을 확대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될 경우는 국경을 통한 북·중 간 교역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통해 미국 등 서방의 국제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필수물자를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특히 북·러 국경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9일, 푸틴과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만나 ‘새 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두 정상이 대북 제재 해제를 직접 요청했다. 또한, 공동성명에 동북아 지역 교통,

7 “러 파병 소식에 北 주민들 동요 …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뉴데일리』, 2024.10.31.

8 상이군인 가운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군인이 많고, 상이군인이 아닌 일반 참전군인 가운데서도 가공할 만한 최신 무기 공격을 받은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파병’ 공식화한 北, 후속조치로 정당성 강조 주민 동요 차단,” 『노컷뉴스』, 2025.04.29.

10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 금년 초까지 러시아에 400만~60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추가 포탄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한편, 주요 수출 금지 품목인 광물의 해외 반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유엔 감시체제 와해 1년… 북·중·러 더 과감해진 경제밀착,” 『파이낸셜 뉴스』, 2025.06.11.

11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 『조선일보』(인터넷 기사), 2025.04.30.

##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9)

김 열 매 성도

정체 모를 프리패스 신분증을 가진 남자와 왔던 길을 되돌아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고모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그 남자가 가진 신분증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 그는 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브로커에게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오빠가 탈북할 때 쓰라고 보낸 200만원에서 반을 수수료로 떼어내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일을 미리 예상하셨던 외삼촌 어머니는 제가 떠나기 전에 돈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만 챙겨가라고 하셨었습니다. 몸에 돈을 지니고 나가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내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한다시며 나머지 돈은 청진에 아무개집에 가서 받는 것이 낫겠다고 지혜를 내셨던 것입니다.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프리패스 남자는 알고 보니 청진 도 보위부 지도원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위부라 하면 사람이 죽어야만 나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지도원과 하루 종일 함께 다녔다는 생각을 하니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 버린 것만 같은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있는 돈을 다 내어주고 더 내놓으라는 그 사람에게 주머니를 모두 뒤집어 보이면서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서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내일 언제까지 도 보위부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고모님께 이제는 집에 가겠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모댁을 나오자마자 외삼촌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집으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그곳 집주인과 온성까지 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철도국 간부라고 하시며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옆집을 찾아가 커다란 별을 달고 다니는 간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통행증을 받고 청진까지 왔는데 온성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한다. 하지만 통행증을 청진까지만 받은 탓에 갈 방법이 없다”며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북한 돈 20만원을 꺼내 그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돈을 본 그 간부는 바로 도와주겠

에너지, 무역, 투자,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등 분야에 관한 ‘두만강 이니셔티브’ 참여국 간 협력 발전에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양국이 그동안 은밀한 통로로 진행해온 대북 교역을 앞으로 드러내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무역 확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sup>12</su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대놓고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앞으로 유엔의 제재를 유야무야하게 만들고, 러·중의 대북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러-우 전쟁 기간에 러시아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는 상당 부분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가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파병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약 277만원)가량 받는다고 했다. 북한군 1만 명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월급을 1년으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달러(약 3천2백80억 원)에 이른다.<sup>13</sup> 국가정보원은 또 올해 4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1만 5천 명(이 가운데 망자 600여 명을 포함하여 4700여 명의 사상자 발생)을 파병했다고 했는데,<sup>14</sup> 그렇다면 연간 총 3억 6천만 달러(약 4천9백20억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사망자의 보상금은 물론 대려 무기 및 탄약 공급으로 벌어들이는 금액까지 합한다면 북한은 훨씬 더 많은 외화를 얻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

나 이러한 자금이 피해자 보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투입되기보다는 주로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러-우 전쟁 종전의 여파는 북한에게 새로운 전략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 계기는 북한에 대외적으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북한 체제의 생존 논리와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이해관계 국가들은 이에 대비한 복합적 외교·안보 전략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 후에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었던 외교적 관심을 다시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러-우 전쟁의 종전은 북한의 정치사회적인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개월 동안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러시아를 도와 전쟁에 파병한 것과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 북한 사회는 동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동요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할 때 북한 체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러-우 전쟁 참전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한편, 전사상자에 대한 위훈비 건립과 그 가족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제재 가운데 경제 활성화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러-우 전쟁으로 깊어진 북·러 관계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더 긴밀한 경제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며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는 핵 해법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후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12 “유엔 감시체제 와해 1년… 북·중·러 더 과감해진 경제밀착,” 『파이낸셜 뉴스』, 2025.06.11.

13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위험한 이유,” 『BBC 코리아』(인터넷 신문), 2024.11.04.

14 “국정원 “北, 러-우 전쟁에 1만5000명 파병…사상자 총 4700여 명,” 『아주경제』(인터넷 신문), 2025.04.30.

다고 하며 청진역으로 우리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그를 따라서 역에 도착하니 북쪽 남양으로 가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그 열차의 맨 앞쪽에 있는 운전실에 우리를 태워 보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마차 보위부 검열대가 수십 명씩 올라 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검열했습니다. 가슴을 졸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들은 운전실로 들어오지 않아 검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남양역에 다다를 즈음에 기관사는 잠시 열차를 멈추고 우리를 한 굽이진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통행증이 없이 역에 도착하면 바로 검열을 당해 그곳에서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은 논밭을 가로질러 남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중국 목사님이 보내주신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자전거 두 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타고 저는 아들을 업고 브로커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온성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 뒤에서 저는 제가 태어나 살던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스쳐 지나가는 마을의 풍경과 함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지나갔습니다. 작업실에서 옷을 수선하 시던 아버지, 따뜻한 저녁식사를 준비하시던 어머니, 진지한 목소리로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가 보고 싶어 눈물이 고였지만 금세 바람을 따라 흩어져갔습니다. 저 멀리 할머니가 안장되어 계신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내가 지금 살던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려 합니다.’하며 눈물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온성읍을 지나 김일성 동상이 높게 세워

진 왕재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조중북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산에 나무들이 하나 없이 민둥산인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온성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땅을 일구다 보니 산들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곳은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손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왕재산에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와 함께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거나 의심할 것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산길을 올라 숲을 헤치면서 두만강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굵혀 등에 업혀있던 아이의 얼굴에 피가 났지만, 아이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큰 소리 내지 않고 함께 산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 기슭에 도착하여 네 명이 함께 수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했다가는 다 들통 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이제 여기서 밤이 될 때까지 몸을 사리고 있다가 새벽 한 두시 즈음에 강을 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북한 왕재산 혁명사적지〉

브로커가 통화를 다 한 후에 우리는 함께 앉아서 숨을 죽이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브로커가 남편을 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배지 떼어 버리세요.” 남편과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브로커가 다시 한 번 남편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그 배지 떼어 버리시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브로커의 손가락을 따라 남편의 가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그려진 초상휘장이 달려있었습니다. 남편도 본인의 가슴을 보고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금세 얼굴이 파래지면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장군님의 초상화를 가리켜 ‘배지’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진을 가리킬 때는 마치 그 초상휘장이 곧 김일성 김정일인 것처럼 충성을 담아 두 손으로 정중히 가리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늘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장군님을 떼어버리라니! 기분이 매우 언짢아진 남편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우리를 데리고 온 이 브로커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돈을 받으러 가고 있는 것이고, 받고 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사인 남편에게 탈북을 할 것이라고 솔직히 이야기 했다가는 이곳까지 함께 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나까지 중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끝까지 남편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이상한 김새를 눈치 챈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가니?”

저는 이제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강이 두만강이고 중국과 조선의 국경입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야 할 것이고, 건너가다 잡히면 죽고, 살면 그대로 남조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 돈만 받아오는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가면 영 가는 겁니다.”라고 뺨기를 박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남편은 “나는 안 간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그렇지만 아이는 놔두고 가라”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정말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아빠는 집에 가세요. 나는 아이를 데리고 건너 갈 거예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북쪽으로 와보지 못했던 남편은 눈앞에 있는 두만강이 자신이 살던 평안도에 비류강 같은 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국경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에 제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날 때, 몇 달 전부터 미리 브로커와 연락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집에서 출발 할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떠났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위태로운 현장에서 이제야 강을 넘네 마네, 혼

자 가네 아이를 데리고 가네 옥신각신 다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브로커는 당황하여 다시 중국 목사님께 전화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은 드디어 결연한 표정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탈북을 결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그동안의 마음의 시름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 팀으로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속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며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리되자 브로커도 안심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아직도 해가 뽀뽀했고 이제 막 정오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강기슭으로 내려가 상황을 살피고 오더니 갑자기 “이제 강을 건너야 해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 비탈진 곳 중턱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는 우리를 다급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너무 놀라 제 심장이 쿵쿵쿵쿵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니, 밤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인가요? 나는 못 가겠어요.”라고 겁쟁이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전 까지도 가지 않겠다고 하던 남편이 브로커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아이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싫다고, 밤에 가자하는데도 브로커는 지금 군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조용하니 지금 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둘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버티고 있는 저의 손을 브로커가 잡고 아래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힘없이 비탈길을 줄줄 미끄러져 내려와 강물까지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들어 목마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저도 브로커의 손에 끌려 강에 발을 담그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0-30m 정도 들어가 강의 가운데쯤 들어섰을 때, 물은 제 목까지 차올랐고 조금 더 전진하니 남편의 목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에 타고 있던 아들이 강물에 발이 닿자 갑자기 소리를 뻥뻥 지르며 좋다고 물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물소리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물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로커의 손에 끌려가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혹시 아이의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강의 반 정도밖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멀리 오지도 못해 강기슭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림잡아 1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5-6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위에 하얀 면내의를 입고 봄에 씨앗을 심기 위해 강기슭에서 땅을 고랑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기슭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들이 강에서 보니 시야가 트여서 또렷이 보였던 것입니다. 겨우 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군인들이 있고 우리는 강을 넘고 있으니 젊은 군인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금방 쫓아와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잡히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강물이 차가운 줄도 모르고 허겁



지갑 브로커를 뒤따라 건너다보니 어느덧 반대쪽 중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강기슭에 올라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몸으로 숨을 헐떡대며 숨어서 건너온 쪽을 바라보니 고랑을 짓던 북한 군인들이 제가 그들을 처음 발견한 모습 그대로 계속 호빠를 들고 땅만 일구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어머, 저 사람들 봐. 아이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 앞에서 건넜는데도 보지 못했어. 지금도 모르네!”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은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렸습니다.”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열왕기하 6:18

그렇게 우리는 중국 땅에 들어서서 브로커가 불러 온 택시를 타고 목사님이 계시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공안들이 타고 있는 차가 지나가면 옆드려 숨기도 하면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에서 차를 세우더니 우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온 것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 물결이 한심해서 그대로 시내로 들어가면 잡히기 딱 좋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새 옷을 사 올테니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셋이서 산속에서 브로커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가 새로 사 온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고 달렸습니다.

드디어 시내로 들어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을 보자 반가움과 안도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릴 적에 보았던 목사님을 20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뵈 수 있었던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교회 간사님께서 해 주시는 하얀 이밥과 커다란 생선 구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그릇이 제법 큰 그릇이었는데도 허기져 있던 상태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먹으라는 목사님의 권유에도 괜스레 민망해져 더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때 김일성 배지는 어떻게 했는지, 버렸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니요, 차마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중국에서 옷을 갈아입고 입던 옷을 버리면서 같이 버리게 되었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옷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어버린 우리의 탈북 이야기가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그 땅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늘 귀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3:7-8) (계속)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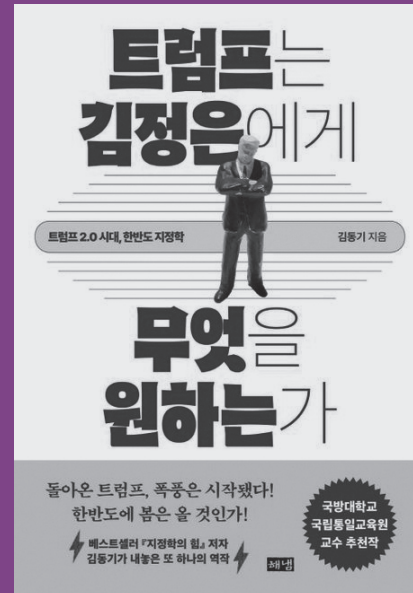
**제 목:**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저 자:** 김동기

**출판사:** 해냄출판사

**발행일:** 2025년 2월 17일

**가 격:** 19,800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해 줄곧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미 정계에서 북한의 핵 폐기 대신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가 백악관에서 다시 정정하는 웃지 못 할 장면들도 수차례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해프닝이지만 우리로서는 미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행보는 북핵을 안보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다.

트럼프, 더 나아가 변화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이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는 이러한 북한을 향한 미국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중, 북중관계 등에 주목하여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미중관계, 북중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짚은 흐름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북중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과,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언급하는 관련 보고서도 제시한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미 정계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략적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게 북한의 핵 보유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룬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 본토를 사정거리로 하는 일부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만 폐기해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관여로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전망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면 구태여 양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으로 논지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북한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이다. 이 책의 주요 논지인 미국의 ‘북한 유인’과 ‘한반도 동맹구조 재편’ 시나리오는 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더라도 그것이 남북간 적대관계 청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속단하기 어렵다. 적대적 두국가론을 이야기하는, 체제 수호가 가장 중요한 북한이기에 사상 문화적 위협에 대한 경계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제재 우회와 중국과의 외교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향후 행보나 북미 대화의 향방에 대해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북·중 간의 갈등의 역사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등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다. 비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논의의 영역이겠지만, 우리가 흔히 상수로 생각하는 북중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향후 트럼프의 행보와 북미 대화의 향방을 대중국 견제 및 북중관계와 연계해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을 둘러싼 향후 정세 변화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서 관심 있는 분들께 소개해 본다. 🐼

## 북한 파병 공식 인정...러, 북러 우호관계 선전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이 러시아 군가를 부르는 모습〉

북한이 4월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로의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이어 러시아 역시 크렘린궁 성명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군인들의 영웅적 면모와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군사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

을 주요 매체에 노출하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선전하였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방송은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노래 '카추샤'를 번역해 부르는 장면을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다.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도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각각 러시아 국기와 소련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방영했고, 타스 통신은 북한군이 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상을 방영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 대사는 지난 5월 8일 쿠르스크 현지에 북한군 기념탑을 건설하고 마을의 명칭을 북한군 파병을 기념해 변경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5월 12일) 🐟

## 유럽, 우크라이나 침략범죄 처벌 특별재판소 출범 추진... 북한 수뇌부도 기소 대상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한다.

5월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금명간 외교장관 회의

를 열어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때문이다. 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

## 푸틴·시진핑, “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촉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정상회담한 뒤 서명한 '새 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만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

적 조치와 무력 압박, 동북아지역 군사화 정책과 해결을 유발하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무력·군사 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련국들의 국익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라며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 지역 교통, 에너지, 무역, 투자,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등 분야에 관한 두만강 이니셔티브 참여국 간 협력 발전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문제와 미국발 관세 문제, 중동 지역의 안정,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유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9일) 🐟

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참고: 연합뉴스, 5월 13일) 🐟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대러 수출 겨냥 가능성



북한이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km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km를 비행해 알섬 100km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북한은 이날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과 KN-25(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250~350km를 기록한 미사일은 KN-25, 800km를 날아간 미사

일은 KN-23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

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를 묻자 “일부 수출을 하기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8일) 🗞️

##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착공… “우정의 길”



산역을 기차로 오갈 수 있는 철교가 있지만 자동차용 교량은 없다.

이번에 착공하는 다리는 총 850m 길이로, 기존 두만강 철교에서 강 하류로 약 415m 내려간 지점에 건설된다. 타스 통신은 다리 자체 길이가 1km(러시아 쪽 424m·북한 쪽 581m)라고 설명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착공식이 4월 30일 열렸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참석한 화상 착공식에서 두만강을 가로질러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자동차 다리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지역발전 담당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는 화상 착공식에서 두만강 자동차 다리를 '우정의 길'이라고 부르며 북러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다리는 2024년 6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면서 새로 지어지게 됐다. 현재 두만강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

러시아 교통부는 이 다리를 통과하는 차가 하산 검문소를 지나게 될 것이라며 “계획상으로 10개의 차선을 통해 하루 300대의 차와 2천850명이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교량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했다. 예상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참고: 연합뉴스, 4월 30일) 🗞️

## 푸틴, 시진핑과 대화하고 北장성과 포옹... 북중러 붉은광장 집결



열해 있던 북한군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하였다.

열병식에는 시 주석과 북한 대표단 외에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27개국 정상

이 참석해 푸틴 대통령

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 장비 퍼레이드에서는 드론 부대가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능력을 확인받은 '오를란', '란체트', '게란' 등 러시아산 드론들이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 드론들이 최대 50km 비행할 수 있고 체공 시간이 40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9일) 🐟

5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원과 북한의 직접적 군사 지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열대 정중앙에 나란히 앉아 군사 행진을 지켜봤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붉은광장에 입장할 때부터 함께 등장하고 수시로 통역을 통해 대화하며 남다른 밀착을 자랑했다.

관중석에서 북한 대표단도 포착됐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훈장이 가득한 군복 차림의 북한 군 장성들은 관중석 1열에 앉아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행사가 끝나고 붉은광장에 도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고,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북미간의 대화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고도화 된 핵 무력을 보유하고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형성한 북한이기에 비핵화를 안건으로 하는 대화에는 나설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고, 북미 협상이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또는 동결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지속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상실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각 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방향전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향후 정세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북미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앞으로의 정세 변화가 북한의 국가적 방향성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위협과 도발을, 내부적으로는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의 방향성이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중단되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기도합니다.

**3** 러우 전쟁의 종전 움직임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러우 전쟁 파병을 인정하였습니다. 북러 밀착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러우 전쟁의 종전 또는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점령지에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고, 그 외 지역에도 더욱 적극적인 북한 노동자 송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해외의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세계 여러 지역의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한국 선교계와 세계 교회의 협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통일과 선교의 주역으로 남북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다가올 통일의 주역은 지금 성장하는 다음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쪽에서는 통일과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고, 북쪽에서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와 우상화 교육이 여전합니다. 남북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 안에서 성숙한 남북의 다음세대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북한의 보릿고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보릿

북한 기도 제목

고개 시즌을 맞으면서 북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경제를 장악하고 주도하려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어 서민 경제 개선에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격차와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6**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간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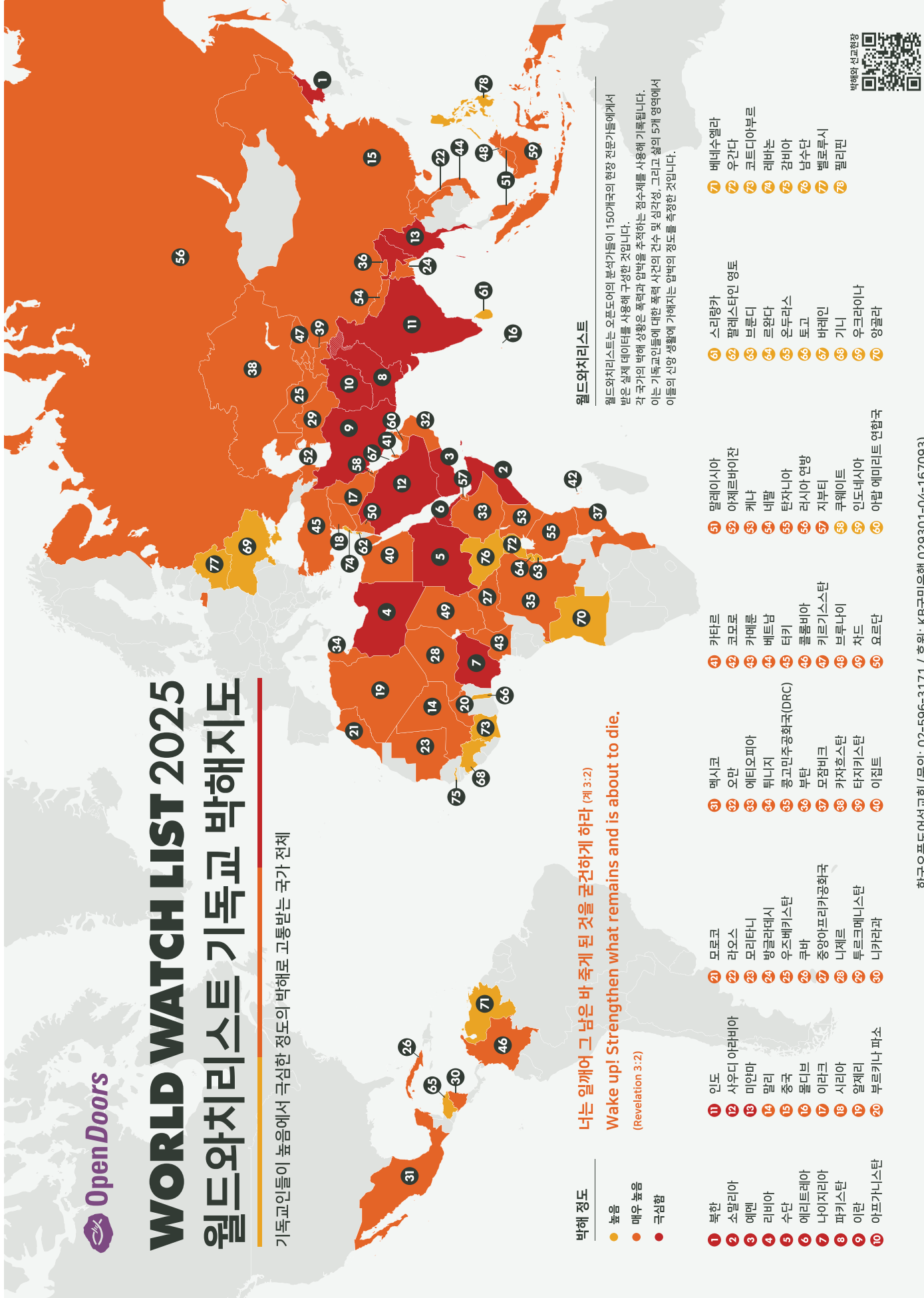
**7**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강제 복송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개된 강제 복송으로 인해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사실이 적발된 탈북 신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대상 사역을 하시다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도 1년 넘게 억류 중에 있습니다. 간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8**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악화하는 제삼국 북한선교현장의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시행 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늘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더욱 정밀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5월 30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